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6년 5월 발행 (제 73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 ◎권두 메시지 '되살아나는 바빌론 제국' 예레미야
 - ◎간증 '토요일 모임에서 가르쳐 주신 것 (2)' E3
 -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

<권두 메시지>

'되살아나는 바빌론 제국' 예레미야

이번에는 "소생 바빌론 제국"으로 이 일을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바빌론은 오래된 옛날에 존재한 국가이며, 현재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성경은 종말의 날에 바빌론이 되살아나는 것을 예언하고있는 것 같아입니다. 이 것을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바벨론의 이름이 출현>

종말을 예언 계시록에 갑자기처럼 "바빌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7: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17: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는 바벨론의 이름이 요한 계시록에 출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말의 날에 대해 "바빌론"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바빌론 제국은 7 개의 시간을 거쳐 되살아 난다? >

구약 다니엘서를 읽는다면 이 책은 바벨론 제국이 7 개의 시간을 거쳐 중 되살아 난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부분을 보세요.

다니엘 4:24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4:25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4:26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후 바벨론 왕은 다니엘의 말대로 인간 속에서 쫓겨나 짐승 같은 풀이 일곱 때를 보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성이 돌아와 왕의 자리에 돌아 왔습니다.

이 것은 이상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 틀림없이 성취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한 명의 왕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테이블에도 뒷면에 문자가 쓰여진 책이며,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일면 바벨론 왕 개인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무르지 않고, 바빌론이라는 최초의 세계 제국의 미래를 말한다 예언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이라는 특별한 국가의 미래를 말한다 예언입니다. 즉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완전히 소멸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근주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바벨론 나라는 7 개의 시간을 거쳐 종말의 날에 소생 그 것을 예언 한 기술이다 것처럼 생각합니다.

<요한 계시록도 바벨론이 되살아 날을 예언>

바벨론 제국이 7 개의 시간을 거쳐 되살아 난다? 는 들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이해가 실수하지 않는 경우에 계시록도 그 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봅시다..

요한복음 17:7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17: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에서는 종말의 주역 인 일곱 머리와 열 뿔과를 가진 짐승, 즉 종말의 짐승 대국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묘사하여 "네가 본 짐승은 옛날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곧 무저갱에서 올라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짐승의 나라는 계시록을 쓴 요한의 시대를 기점으로

1. 요한의 시대 이전에 존재했던 옛 제국이다.

2. 그러나 지금, 즉 요한의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 즉, 이 나라의 근주 밖에 남아 있지 않다. 보이는 국가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하지만 미래의 시대에 이 나라가 다시 보이는 대국으로 출현한다. 즉 근주에서 나무가 되살아나 대목 대국이되고 종말의 날에 출현한다.

이런 일이 이야기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짐승의 나라에 관한 예언은 바로 위 다니엘서의 예언 일곱 시간을 거쳐 소생 바빌론 제국에 관한 예언과 부합하고 일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짐승의 수 7 개 교제 바빌론 왕

<일곱 머리의 의미>

이 종말의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7 개의 머리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계시록 7 개의 머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9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7: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곳에서 7 개의 머리는 곧 종말의 짐승의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7 개의 대국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코'라고 묘사에서 요한의 시대 세계 제국인 로마가 그 7 개의 제국의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은 이미 넘어졌지만"이라고 설명에서, 그 중 5 개의 제국은 요한의 시대 이전에 존재 한 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로마 이전의 제국 바빌론, 메대와 바사, 헬라 등이 포함 된 것입니다.

왜 이 짐승의 나라에는 7 개의 머리가있는 등이라고 쓰여져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이 종말의 짐승의 나라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과거 7 개의 제국의 영향을 받고있는 나라이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7 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 이라고 쓰여져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이 짐승의 나라가 과거의 제국의 영향을 받고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다니엘서 7 장을 참조한다면, "표범"은 헬라 곰은 메대와 바사 "사자"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종말의 짐승의 나라는 이러한 과거 제국의 영향이나 성질을받은 나라임을 여기서 그려져있는 것입니다.

<일곱 머리는 일곱 때를 의미하는데 사용된다>

성경은 종말의 짐승의 나라에 대해 이 나라가 7 개의 머리를 가지고있는 것을 몇번이나 말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3: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는 열 뿔과 일곱 머리가 있었다.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 이름이 있었다. 따라서, 이 짐승의 나라의 머리는 하나가 아닌 7 개의임을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성경이 종말의 짐승의 나라가 과거와 무관한 새로운 국가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 짐승의 나라는 과거 7 개의 국가와 매우 관계하고있는 것을 말하고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 있습니다. 지난 7 개의 국가는 과거의 7 개의 시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짐승의 나라야말로 다니엘서에 예언 된 7 개의 시간을 거쳐 소생 그 부활 한 바빌론 국인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7 번째이며 또한 8 번째인 국가>

그런데 계시록은 이 짐승의 나라에 대해서 더 복잡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17: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이 짐승의 나라는 7 번째이지만, 그러나 또한 8 번째 인 것으로 그려져있는 것입니다.
7 번째이며, 한편 8 번째? 전혀 수수께끼 표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8 은 부활의 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각각의 숫자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성경으로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우리 주님도 주 첫날 (7 + 1), 즉 8 일째에 부활했습니다.
또한 부활의 형태 인 할레도 생겨나 고 8 일에 이루어집니다.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8 번째 머리는 곧 일곱 때를 거쳐 8 번째 때 나타나는 부활 한 바벨론 제국과 부합하도록
생각됩니다.

<짐승의 나라가 살해 된 후 부활>

국가가 죽거나 소생 할 것인가? 생각지도 모릅니다만,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7 번째
국가인 짐승의 나라가 살해 되었는가 하는 경험을 하며 기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계시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3: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에서는 짐승의 나라가 살해 된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 그리고 그 후 기적으로 부활 할
그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에는 이러한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즉 짐승의 나라 미국이 앞으로 자작극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날, 미국의 적국에서 (러시아 등의 나라인가?) 다수의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발사되어 미국
전역은 여기 저기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미국은 그 짧은 사이에 회복하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한 미국은
다른 나라를 반대로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제국으로 군림하는, 그것은 이 예정되어있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왜 미국은 그런 단기간에 엄청난 타격에서 회복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공격이 자작극 인 짜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괴도 부활도 충분히 준비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9.11 테러처럼 자작극입니다. 현재 이미 미국은 지하에 그림자 정부도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지하에는 군대도 철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대비는 미국에서 비밀리에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후 미국은 바벨론 나라입니다>

같은 하나의 국가 인 미국이 7 번째입니다, 그리고 8 번째 머리가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2 역을 합니다. 7 번째와 8 번째의 구분은 엄청난 부활의 날입니다. 즉 타국에서의 공격으로 파괴하기 전에 미국은 7 번째 머리이며, 부활 후 미국은 8 번째 머리입니다. 어쩌면 부활 후 나라 이름이 바뀌어 미국에서 바빌론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개명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미국 괴멸 날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멸망 것입니다. 그날은 계시록 음녀 바벨론의 심판의 날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빌론에 시집 온 미국 교회>

그런데 같은 바빌론이라는 이름이 계시록의 음녀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7 개의 머리의 짐승에 앉는다.

요한복음 17: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이 음녀에도 바빌론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있는 것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그 이유는 내 생각에 이 여자 교회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빌론에 시집 있으며, 바빌론의 나라를 남편으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결혼하고 남편의 이름을 자칭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도 남편 인 바빌론의 이름을 자칭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 인 그리스도의 귀가를 기다리는 과부가 아닌 다른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임을 스스로 공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7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라고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음녀 즉 미국의 교회가 7 개의 산에 앉으며 말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7:9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이 여자가 7 개의 산에 앉아 표현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이 여자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 개의 산 7 명의 왕은 방금 봤어요처럼 과거의 일곱 세계 제국입니다.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등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 나라이며, 이방 나라이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이들 국가는 각각 사자, 곰, 표범같은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있도록 올바른 신앙인을 죽이는 나라입니다. 이 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들이 박해 된 것은 바빌론 제국에서입니다, 또한 에스터에 쓰여진 유대인 학살이 계획된 것은 메대와 바사 나라 중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리스 국가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 즉 미국의 교회에 대해 그것은 이러한 이방 7 개의 제국에 앉아있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알기 쉽게 말한다면, 미국의 교회는 과거의 7 개의 이방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것이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인가?

조사한다면, 분명히 이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바빌론 연고의 연금술이 사용되고, 금가루가 흩 치아가 금니가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빌론의 역사입니다. 또한 야베뜨기도를 비롯한 바빌론 연고의 마술이 매우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신학교에서 헬라어 연고의 과학이나 이성이 매우 존중되고 복음의 기적과 부활을 부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말 그대로 로마 국가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미국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지난 7 개의 이방 제국의 영향이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분노를 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리스도 교회의 멸망은 예언되어있다>

미국 그리스도 교회, 그것은 나의 이해는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쁜 의미에서입니다. 무엇이 특별합니까? 라고 하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미국의 그리스도 교회의 멸망 만은 "음녀 바빌론"로 명확하게 성경에 예언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분명히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그날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멸망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합시다.

간증 '토요일 모임에서 가르쳐 주신 것 (2)' E3

이번에는 최근 토요일 제자의 행보 집회에서 "죽은자는 심판"이라는 주제로 예레미야 목사가 추천되어 있던 것을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1: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여기에서 "사자"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사자"는 단지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동일한 그리스어가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1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3: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살아 있다고되어 있지만, 실은 죽어있다."고합니다 것처럼 하나님은 "육체의 생사"의 수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죄"죽어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명목 보지 않습니다. "신부님"는 이전에도 이야기를하겠습니다했듯이 렘넌트 교회는 "개신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거친 말투가 되어 버립니다만... 신부님, 즉 ""개신교는 올바른 행보에 들어갔다"라고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명목이다. 실제로 죄에 죽었어요."라고하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 케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것처럼 하나님이 눈을두고있는 것은 '실시'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지?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있습니까? 죽어 있는지? 것은 "영생"에 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살아 있다고되어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죽어 있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명목 만 살아 있어도 실제로 죽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살펴 보자.

요한복음 20: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20:13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살아 있어도 실제로 죽은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살아 있어도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좋은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사자"로 간주되어 버렸을 경우에 심판 버립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사람 & 죽은 자의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사람들에 대해 말해지고 있습니다.

① "생명책"에 이름이 끝까지 적혀있는 사람. 잠 & 죄 & 죽고 들어 있지 않은 사람.

② "사자"라는 사람. 덧붙여서 "사자"는 죄거나 하나님에 대한 반항에서 되살아 않은 사람입니다. 행위 나 죄에서 살아 않은 사람에서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부활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들은이 책에 쓰고 기록 된 바에 따라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 하셨다"했습니다 있도록 "사자"는 "책"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 드리지만, "사자"는 그리스도의 부활 &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은 기록대로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생명책"는 불리한 것을 쓸어 버릴 것이라고 말할 수도있다. 그리고 13 절에 기록되어있는 "사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실려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는 실려 있었지만 사라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자"로 머물러 버리는 경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뭇"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싶습니다. 계속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2:13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2:14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는 "사자"였습니다. 그러면 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활용되고 모든 나쁜 부채를 비활성화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면 모든 채무를 해제 해 주실 것을 경험 할 수있게합니다. 그리고 죽은 or 산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대단히 다릅니다. 그

대해 최후에보고 싶습니다.

빌리보서 3: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3:11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3: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3: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3:14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바울은 처리하고 "사자에게서 부활에 도달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견고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인과 표준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사자에게서 부활'을 추구하는 행보입니다.

그래서 잘못도 "사자"에 들어 가지 않도록주의 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것을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되어 있었습니다. 괜찮 으시면 이런 것도 이해하실 수 있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나 소중한 것을 말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빕니다. 감사드립니다.



'죽음에서의 부활'을 바라는 바울